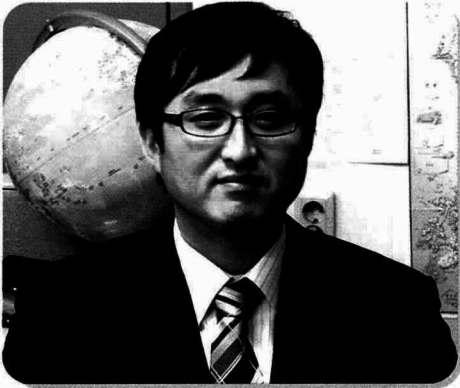


충남대학교 김근우



이번 텔레이 인터뷰 주자는 충남대학교에서 방사선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며 대학방사선안전관리협의회 총무를 역임하고 있는 김근우(34세)씨와 자리를 함께 했다.

그는 전남대학교 동물자원학과 재학시 처음으로 방사성동위원소를 접하게 되었다고 한다. 대학 재학 중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유전자 실험을 통해 “유제품에 방사성동위원소를 주입하였을 때의 결과” 논문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지금도 대학졸업자의 취업이 어렵지만 그가 졸업할 당시에도 취업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그러던 중 졸업을 앞둔 선배 한분이 RI관련면허를 취득 후 수월하게 취업이 되는 것을 보고 RI관련면허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후 RI일반면허와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취득하게 되었으며 취득 후 바로 충남대학교 방사선안전관리자 모집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김근우씨는 “다른 사람에 비해 운이 좋았다”고 겸손의 말을 전하며 충남대학교에 대한 자랑도 잊지 않고 해주었다.

다음은 김근우씨와의 일문일답이다.

지난해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이 시행되었

습니다. 동법은 대부분 교육에 적용되고 있는데 충남대학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요?

우리대학에서는 과거 공동실험실습관 산하 방사선 안전관리실에서 약 150~200여명의 방사선작업종사자만을 관리하던 것을 대학본부 시설환경과 연구실안전계로 확대 개편 약 15,000여명의 이공계열 학생들 전체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구로 탈바꿈 하였습니다. 저도 요즘 충남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및 세칙을 작성하느라 힘이 들지만 학교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지게 되어 열심히 일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방사선안전관리협의회 총무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협의회의 주요 활동사업을 소개해 주십시오.

그동안의 주요사업을 세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2006년 10월에 협의회 홈페이지(<http://www.ursa.or.kr>)를 개설한 점을 들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국공립대학교 방사선안전관리자에 이미 확보된 원자력TO(정원)에 대한 적용홍보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미 원자력TO가 국공립대학 정원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면허자가 정직원으로 채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협의회에서는 적극적인 안내 등을 통해 현재는 대다수 국공립대에는 원자력TO의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채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학의 특성상 다양한 동위원소 사용으로 인하여 전국의 대학들이 각자 다른 방식의 방사선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각 대학의 특징적인 방사선안전관리에 대한 정보교류를 통하여 방사선안전관리 summary book(가칭)을 제작할 예정이며 이책의 배포를 통하여 대학의 방사선안전관리에 대해 표준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협의회에서는 2007년 1월 30~31일 양일간에 걸쳐 제3회 정기총회를 겸한 「2007 대학방사선안전관리협의회 학술대회」를 경남 김해 인제대학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방사선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신지 6년째에 접어들고 계신데 업무를 보시는 중 기억나는 점이나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2002년 처음 안전관리 업무를 맡았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처음 우리대학에서 안전관리를 맡았을 때는 각 단과대학별로 별도의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하여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를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처음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맡아 배워가면서 통합작업을 하였으며 작업 중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보완 요구를 3번이나 받아 고생을 했던 점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우리 대학에서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방사선안전관리의 커다란 문제 중의 하나인 방사성폐

기물 자체처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독립된 방사성폐기물 저장용 건물을 지어 완공을 하였습니다. 여타 기관과 달리 방사성폐기물만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으로 약 30여 평의 단독 건물로 완공 하였으며 추후 상황을 보아가며 증축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여가생활로 충남대학교의 직원, 교수, 조교 등으로 구성된 직장인야구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야구동호회에서도 총무를 맡아 한 달에 한번이상은 모여 야구를 즐기며 프로야구 시즌 중에는 동호회 회원들과 야구 관람도 즐기고 있다고 한다.

인터뷰 당일에도 대학방사선안전관리협의회의 일로 출장을 다녀와서 늦은 시각에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그의 타고난 성실함 탓인지 모든 일에 항상 열정적인 그의 모습에 이런 젊고 유능한 안전관리자가 많은 우리 방사선안전관리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어 즐거운 마음으로 인터뷰를 마칠 수 있었다.

충남대학교 김근우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다음번 인터뷰 주자로 그린피아기술(주)의 유승희씨를 추천하였습니다.

공지사항

2007년도 정기총회 개최

당 협회 정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07. 2. 14(수) 14:00
2. 장 소 : SH공사 14층 회의실(당 협회 소재 건물)
3. 회의안건